

제 94회 USDA 농업전망(Outlook Forum)보고서

aT 뉴욕지사

1. 포럼 개요

□ 주 제 : The Roots of Prosperity

- 농가소득 감소, 무역협정 재협상 등 미 농업 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출증대 방안, 농촌 인프라 개발 등 정보공유

□ 기 간 : 2018. 2. 22.(목) ~ 2. 23(금)

□ 장 소 : Crystal Gateway Marriott Hotel, Arlington, Virginia

□ 주요연사

- 환영인사 : Steve Censky (USDA 차관)
- Keynote : Sonny Perdue (USDA 장관)
 - * '18년 주요 농업이슈(농업정책, 통상정책, 이민법) 및 정책개혁 필요성(2번 참고)
- 미국 농업경제&무역전망 : Robert Johansson (수석 경제분석가)
 - * 미국 농작물 및 축산물 가격 전망, 정부지원프로그램 소개(3번 참고)
- 저명인사 : Dr. Akinwumi A. Adesina
 - *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회장으로 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 잠재성 주장

2. 주요인사 연설내용

□ Sonny Perdue(미 농무부 장관)

- 농업정책에 대해 기존에 비효율적이며,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들을 없애고, 농가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혁할 계획이며, 세제개혁 등을 통해 농가 생산성 향상 및 매년 농업비용의 5천만 달러 이상이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
- 통상분야에 있어 NAFTA 등 무역협정 재협상은 미국 농업과 경제에

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

- 미국 농업은 규제, 무역 및 합법적 노동력(regulation, trade and legal workforce)이라는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힘
- 트럼프 대통령이 1개의 규제를 만들 때 2개의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1개의 규제를 만들 때 22개의 규제를 폐지(has gotten rid of 22 regulations)했다고 말함
 - 현재까지 미 농무부는 2백건의 규제 개선 제안을 받았으며, 많은 건을 타 기관 소관으로 해당기관에 이첩했다고 설명함
- 미국의 농업 무역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*하고 있으나,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함
 - * 미 농업무역수지 흑자 : ('16년) 166억 달러 (' 17년) 213억 달러
 - 전 세계적인 중산층 증가 추세*, 특히 아시아 지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해법이라면서, 무역장벽(trade barriers)을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갈 것임을 밝힘
 - * 2026년 중국 중산층은 3억7천만으로 2배 이상 증가, 인도는 3배 증가
 - 미국 농산물 수출 성과를 열거하면서, 중국으로 쇠고기 수출 재개 및 쌀 최초 수출, EU의 감귤(citrus) 규제 해소, 일본의 감자(chipping potatoes) 수출 재개, 한국으로의 가금류 수출 금지 해소(lifted its ban U.S. poultry), 베트남으로 곡물 수출 등을 언급함
- 현재 H-2A 비자는 번거롭고 복잡하여(cumbersome, convoluted) 미국 농민들에게 효과가 없으며, 농촌인력 파견제도가 규제에 묶여 있다고(bound up and bundled up in regulations) 언급함
 - 대다수의 농업종사자들은 이민법 개정이 농촌 인력의 약 46%를 차지하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

- 전 미농민연맹* 이민전문가인 Kristi Boswell을 영입하여 이민문제 (immigration issue)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함

* AFBF :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

- 미 농무부 장관 취임 이후, 33개 주에서 만난 농민들이 Farm Bill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농장 안전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함
- 비상사태 재해법안(emergency disaster bill)은 면화와 낙농산업에 도움이 되었으며, 낙농가들은 농업법(Farm Bill)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고 언급함
- 허리케인과 산불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은 극단적인(extremes) 것이었으나, 이와 같은 것을 해마다(year in and year out)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법(Farm Bill)은 농업 안전망(farm safety net)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말함
- ※ 국가별 무역관련 성과를 설명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, 주미한국 대사관측과 고병원성 AI 지역화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

□ Robert Johansson(USDA 경제수석)

- 농업분야는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(economic stress)을 겪고 있으며, 부채는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함
- 2018년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6.7% 감소한 595억 달러로 예상되며, 이는 2013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
- 향후 10년간 농가 순소득(net income)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

- 농가 소득이 정체된 반면, 부채 대비 자산비율(debt-to-asset ratio)은 1985년 최고점인 22%에 비해 낮은 13% 수준이고, 가금농장의 3/1과 면화농장의 20%가 부채비율이 40% 이상임
- 미국의 달러 가치 절하로 인해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장기전망은 농촌경제의 어려움(struggling farm economy)이 끝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(real light)는 없다고 말함
- 미국 농산물 수출은 2018년 회계연도에 1,396억 달러로 전망되며, 흑자는 2017년 213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2026년까지 중국 중산층 가구가 2억7천만으로 2배, 인도는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이 중요하다고 강조함

3. 2018 미국 주요 농업이슈 및 방향

□ 농업관련 규제 완화

- 기존 비효율적이며 지속가능성 없는 정책들을 없애고 미국 농업 및 농가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개혁
- 대대적인 세제개혁 및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농가 생산성 향상 및 매년 농업분야 비용의 5천만 달러 이상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

□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지지

- NAFTA 등 무역협정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 농업 및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 할 것임을 시사
- 미국은 매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전 세계적인 중산층 증가는 미국 농산물 수요 창출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

* 중산층 증가 추세 : 2026년 중국 중산층은 3억7천만으로 2배 이상 증가, 인도는 3배 증가
* 미 농업무역수지 : 2016년 16.6billion, 2017년 21.3billion 증가로 매년 흑자 기록
* 미 농산물 수출확대전망 : 중국(13년 만에 소고기 재수출, 쌀 수출시작), 일본(감자 재수출), 한국(AI로 금지된 미국 가금육 수출재개를 위한 협상 중)

□ 합법적 노동력(Legal Workforce) 지원을 위한 이민법 개정 대안 제시

- 대다수의 농업종사자들은 이민법 개정이 농업 산업의 약 46%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 노동력 활용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음
- H-2A “Temporary” Agricultural Work 비자 정책 제안
 - 불법체류자들이 미 농업의 주요 노동력이므로 USDA 차원에서 이민법 개정으로 인한 미국 농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
- * Department of Labor에 의하면 미 농업종사자 인구 중 46%가 불법 이민자라고 밝힘
(출처 : The Washington Post)

3. 2018 미국 농업 전망

생 산	교 역
✓ 농축산물 생산량 증가 ✓ 농축산물 가격하락, 농가수입 감소 ✓ 인건비, 연료 등 운전자본 부담 증가	✓ 달러약세 수출증가 ✓ 신규 농산물 교역 확대(중국, 일본 등)
소 비	농업정책 및 통상
✓ 식품가격 지속 하락세 ✓ 중산층 비율 및 구매력 확대 ✓ 못생긴(imperfect) 농산물 의식개선	✓ Farm Bill 2018 Reform 준비 - 비합리 정책 폐지, 면화 및 유제품 지원 확대 ✓ NAFTA, 이민정책, 세재정책 등 - 농업종사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정책 수립

□ (교역전망) 세계구매력 및 중산층 증가, 달러약세로 수출 청신호

- 개발도상국의 중산층 확대가 기대되면서 축산물, 유제품, 곡물, 유지작물(oilseed)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미국 달러의 약세로 무역수지는 ‘16년 회계연도 대비 ‘17년 47억불 증가한 213억불을 기록하였으며, ‘18년 무역 수지는 작년과 비슷한 210~213억불로 예상

	2016년(billion\$)	2017년(billion\$)	증감액
농업 수출	129.62	140.47	10.85
농업 수입	113.04	119.14	6.10
무역 수지	16.58	21.33	4.75

□ (농작물 가격전망) 밀, 옥수수 등은 소폭 상승 예상

Crop	2014	2015	2016	2017	2018F	%Δ
Wheat (\$/bu)	5.99	4.89	3.89	4.60	4.70	2.2
Corn (\$/bu)	3.70	3.61	3.36	3.30	3.40	3.0
Soybeans (\$/bu)	10.10	8.95	9.47	9.30	9.25	-0.5
Cotton (cents/lb)	61.30	61.20	68.00	69.00	63.00	-8.7
All Rice (\$/cwt)	13.40	12.20	10.40	12.50	11.90	-4.8

Data: USDA.

- (밀) 북부지방 등 밀 재배지역의 건조한 기후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2018년 밀 가격은 작년대비 2.2% 증가한 \$4.70/bushel로 전망
- (옥수수) '17년 \$3.30/bushel로 '16년 대비 -1.79%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10년간 적지만 꾸준한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
- (대두) 미국 과잉재고로 가격상승을 억제시켜 0.5% 감소한 \$9.25/bushel 전망
- (면화) '17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 면화 생산지역이 확대되어 9% 하락한 \$0.63/lb 전망
- (곡물) 모든 곡물가격은 5%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

□ (축산물 가격전망)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로 전반적인 하락세 예상

- (소고기) 대량공급에 비해 국내 수요 한계로 지속적인 하락세 전망
- (돼지고기) 전년대비 5% 하락한 \$48/cwt으로 전망되나 수출은 향후 10년간 18% 증가할 것으로 기대
- (가금육) 전년대비 3% 하락한 \$90.80/cwt으로 전망되나 향후 10년간 14% 증가될 것으로 기대
- (우유) 해외 대형공급업체들의 NDW(Non-fat Dry Milk; 탈지분유), 유청(Whey)

등 가격 하락으로 버터, 치즈 등 유가공품 가격의 전반적 하락세 전망

(단위 : Billion Pound)

생산량	2017	2018(P)	증감폭(%)	가격	2017	2018(P)	증감폭(%)
소고기	26.20	27.70	5.9	소고기	121.52	119.25	-1.9
돼지고기	25.60	26.90	5.1	돼지고기	50.48	48.00	-4.9
가금육	41.60	42.60	2.3	가금육	93.50	90.80	-2.9
우유	215.40	218.70	1.5	우유	17.63	16.05	-9.0

□ (농가소득) 향후 10년간 큰 폭의 변동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

- 인구성장속도 및 식품수요 대비 농가 생산성이 훨씬 높기 때문
 - 1960년 대비 대두 생산성은 1,000% 성장하였으나 가격은 47% 하락하였으며, 옥수수 생산성은 400% 증가했으나 가격은 60% 이상 하락
- 농가총소득은 2013년 1,200억 달러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50% 수준인 595억 달러 기록

□ (농가부채) 인건비 등 비용부담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

- 토지 가치 상승으로 부채비율(debt-to-asset)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연료비, 이자비용,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실질 운전자본(working capital) 감소
- 농업비즈니스의 33%와 20%를 차지하는 가금육과 면화의 경우 부채비율이 40%가 넘기 때문에 낮은 상품가격은 농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

□ (Farm Bill) Crop insurance(작물보험)의 중요성 부각, 면화 등 지원 확대

- 작물보험(Farm Bill Title 11)으로 10년간 Farm Bill 지원금의 1/3인 수준인 57억 달러가 지원되고 있음. 2017년 자연재해 피해로 그 중요성이 부각됨
- CBO(Congressional Budget Office; 미 예산의회처)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18년 Farm Bill Title 1의 Commodity 지원예산이 삭감될 예정임

* Title 1 : ARC(Agricultural Risk Coverage), PLC(Price Loss Coverage), 축산물 보험(가축 사망 방목지 화재 등)

- 다만, BBA(Bipartisan Budget Act; 양당예산법)에 따라 목화(Seed Cotton) 및 유제품의 Farm Safety Net(농산물지원, 작물보험, 자연재해지원)은 확대될 예정임

4. 미국 설탕 공급, 수요 및 교역 전망

□ (재고현황) 2018/19년 초기 재고는 2017/18년 초기 재고에 비해 34,000톤 감소한 184.2만 STRV(Short ton, Raw value) 예상

□ (공급전망) 895만 톤 생산으로 전년대비 27만 톤 감소 전망

- (사탕무) ‘18년 사탕무 생산 지역은 42,000acres까지 늘어날 계획이지만 계획된 생산량은 499만 톤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
- (사탕수수) 사탕수수 생산량은 396만 톤 예상
 - 작년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한 플로리다 지역과 텍사스 지역의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
- 인도(35%), EU(34%) 등 국제적으로 설탕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

□ (교역전망) 설탕 수입 증가 예상

- 대미 멕시코 설탕 수출에 대한 Suspension Agreement 협상
 - NAFTA 발효 이후 값싼 멕시코산 설탕의 대미 수출 증가 및 미국 설탕 생산 감소에 따른 손실 반영

구 분	정제설탕	원당
정의	순도 99.5 초과 → 99.2 초과	순도 99.5 미만 → 99.2 미만
대미 수출가	0.22/lb → 0.23/lb	0.26/lb → 0.28/lb
무관세 수입비율	53% → 30%	47% → 70%

- 총 수입은 362만 톤으로 전년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설탕 저율할당관세(TRQ) 152만 톤 및 멕시코에서 181만 톤 수입
- * 2018/19 멕시코 설탕 생산량은 620만 MTAV(Matric ton, Actual value)으로 추정

□ (내수전망) 2018/19 설탕소비는 인구 증가 및 감미료 수요 증가로 전기 대비 1.8% 증가한 1천 2백만 톤으로 전망

- 2018/19 기말재고(Ending stock)는 161만 톤으로 전기 대비 23만톤 감소 예상
 - 2018/19 소비량 대비 재고비율(Stocks to use ratio)은 2017/18 대비 2%p

감소한 12.6%로 전망

U.S. Sugar Supply and Use 1/				
Item	2016/17	2017/18		2018/19
		January	February	Projection
1,000 short tons, raw value				
Beginning stocks	2,054	1,851	1,876	1,842
Production 2/	8,970	9,312	9,230	8,953
Beet sugar	5,103	5,257	5,219	4,992
Cane sugar	3,867	4,055	4,011	3,961
Florida	2,055	2,075	1,992	2,075
Hawaii	43	0	0	0
Louisiana	1,628	1,820	1,857	1,721
Texas	140	160	160	165
Imports	3,244	3,316	3,316	3,620
TRQ 3/	1,611	1,788	1,788	1,522
Other program 4/	419	250	250	250
Other 5/	1,213	1,278	1,278	1,822
Mexico	1,201	1,268	1,268	1,812
Total supply	14,267	14,479	14,422	14,415
Exports 2/	95	100	100	100
Deliveries 2/	12,258	12,555	12,480	12,705
Food	12,102	12,400	12,325	12,550
Other 6/	156	155	155	155
Miscellaneous	38	0	0	0
Total use	12,391	12,655	12,580	12,805
Ending stocks	1,876	1,824	1,842	1,610
Stocks to use ratio	15.1	14.4	14.6	12.6

5.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가치 창출

□ (문 제 점) 폐기농산물로 매년 2~3천억불의 경제적 손실 발생

- 매년 생산량의 40%에 달하는 농산물이 생산 및 유통과정 중 폐기됨
 - 농장(10%), 포장 및 가공(10%), 유통(20%) 과정에서 손실 발생

□ (발생 원인) 과잉공급, 유통기한, 못생긴 농산물

- (과잉공급) 소비자의 눈을 끌기 위해 마트 등의 진열대를 가득 채우는 경향으로 실제 수요량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·진열됨
- (유통기한) Best before, Expiration date, Sell by, Display until, Use by 등 실제 소비가능 여부에 맞지 않는 표기로 판매되지 못하는 농산물 폐기
- (못생긴 농산물) 형태상 “예쁘지 않아”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농산물은 포장 및 가공 단계에서 폐기됨

□ (해결 방안) 못생긴 농산물의 활용방안 제시(* Food Maven사)

- 상품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   
- 못생긴 농산물 박스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(\$11~13/7~9lb)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등장(imperfectproduce.com)
- 폐기되는 농산물의 소비처 확대
- 농가 및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외식업계 재판매, 자선단체 기부 등을 통해 버려지는 농산물 이익 재창출 및 폐기율 최소화

6. 시사점

- 농업분야도 트럼프 정부의 미국 이익 우선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둔 지원 및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
- 지속적인 농업생산량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는 자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수입 규제 기조로 이어질 수 있음